



신호제지(주)

21세기형 신탄진 공장 건설로 국내 최대 제지사 도약

시설의 현대화·대형화로 고품질·대량생산 실현

21세기형 신탄진 공장 건설

며칠 전 TV뉴스에서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난 기사를 방송한 일이 있었다.

그 기사는 우리나라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한국은 세계 최하위의 경제약체국에서 세계 경제국 11위까지 오르는 눈부신 성장을 거듭했지만 최근 경제상황의 악화로 올해 안에 적자 폭을 줄일 수 없다면 아시아의 4마리 용이라 불리는 4개국 중 추락을 경험하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라는 내용이였다.

이처럼 외국잡지에 씩씩한 논평의 대상이 될 만큼 우리나라 경제의 불황이 거듭되고 있는 현

재, 올해 초 96년 국내 30대그룹이 발표되었다. 국내 그룹 중 3개사가 새로 30대 그룹권에 진입되었는데 이 중 한 그룹이 신탄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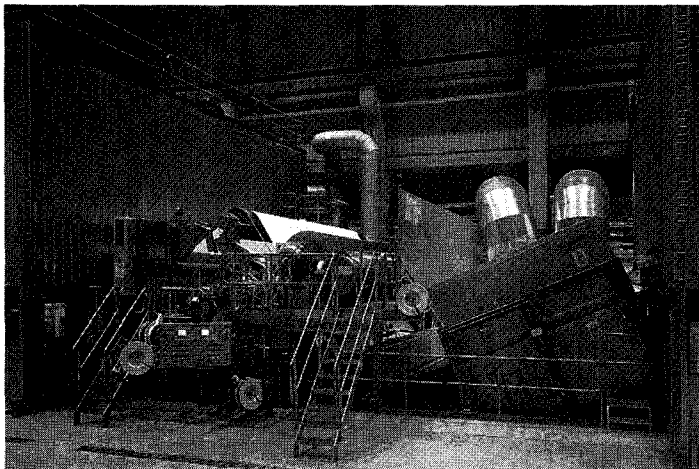
성장의 폭과는 상관없이 최악의 경제불황 속에서 성장을 이루어냈다는 것은 그동안 그만큼의 저력을 축적해 두었다는 것이 사실로 입증된 것이라 하겠다. 이와 더불어 짚어 볼 수 있는 신탄진의 특징은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대졸여사원을 모집하지 않아 고학력여성들의 전문직 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면이 적지않은 반면, 신탄진의 경우 초급 및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여사원들이 홍보 및 해외영업, 비서직 등에 고루 배치되어 있는 진보성을 내재한 그룹이라는 것이다.

이 신탄진그룹 매출액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제지사업부문은 신탄진제지(주), 신탄진페이퍼, 일성제지, 모나리자 4개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신탄진에 국내 최대 규모의 21세기형 제지공장을 건설하고 제 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신탄진제지(주)를 방문했다.

71년 삼성특수제지(주)로 설립된 신탄진제지(주)는 현재 오산 제 1공장과 상주 제 2공장에 이어 신



▲ 신탄진공장 건설현장의 임직원들



▲ 양질의 제지 생산을 주도하는 SYM-SIZER기

탄진 제 3공장을 건설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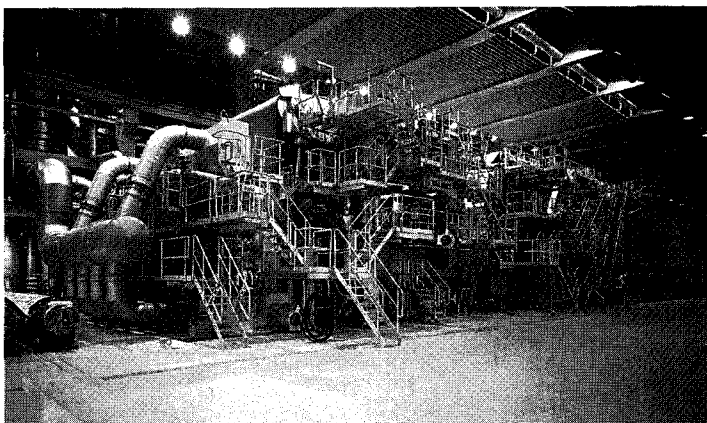
기존 공장이 존재함에도 신탄진 공장을 건설하게 된 것은 2천년대 선진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장비의 대형화가 불가피하고, 국내 최고의 제지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설비의 현대화가 필수적이라는 판단때문이라고 한다.

지난 96년 2월 기공식을 가지고 공사를 시작한 신호제지(주) 신탄진 공장은 건설현장에 들어서면서부터 그 웅장함이 방문자를 압도할만했다. 그도 그럴 것이 대지 3만여평의 규모에 공장동이 1만5천여평, 창고동이 1만여평, 사무동 등 기타 시설이 7백여평, 일생산능력 730여톤 등 그 규모면에서 가히 국내제지사 중 최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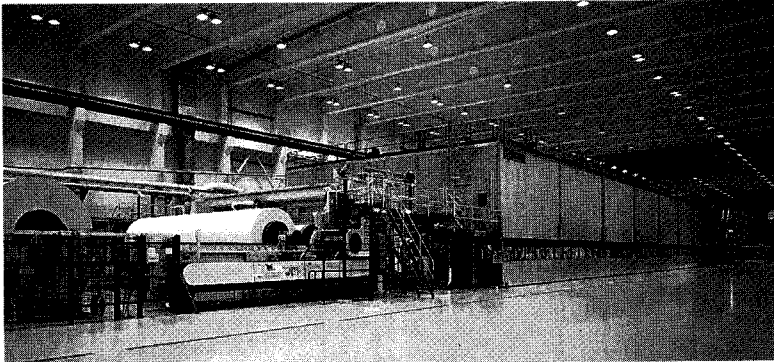
신탄진공장은 오는 6월 1일 생산가동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중인데 현재 거의 모든 기계설치공사가 끝난 상태로 가동을 위한 마무리단계이다.

대량 생산과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의 현대화와 대형화를 목표로 설치되는 신탄진공장의 기계들은 국내산이 60%, 외산이 40% 정도인데 외산의 경우 핀란드 VALMET사의 기계가 다수이며 기계의 도입과 함께 기계설치를 위해 현지의 슈퍼바이저를 함께 불러들여 완벽한 설치에도 소홀치 않도록 배려했다.

신탄진 공장은 시설의 현대화에 따라 새로운 기술과 사무환경을 갖추기 위한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운전기사 30여명을 VALMET사의 기계제작소에 직접 파견해 한달여간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완벽한 기술의 습득을 도모했다. 또한 생산부 및 품질관련 직원 30여명을 대상으로 국내 인쇄소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신입사원을 제지계열사에 3교대로 파견해 직접 현장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 초지 공정 부분의 설비



▲여러번의 드라이 공정으로 고품질 제지 생산이 가능하다.

사원융화 프로그램 실시

신호제지(주) 신탄진 공장의 경우 새롭게 건설되고 그 규모가 방대하기 때문에 각 제지계열별 그룹사 직원들과 신입사원들이 모여 업무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신탄진 공장 건설본부장인 신용규 상무는 “각 지역별, 제지계열사 직원들과 신입사원들이 모이다 보니 가장 많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바로 사원들간의 융화입니다. 그래서 두달 전부터 사원들 스스로 신탄진 공장의 분위기를 만들고 적응해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진행 중인데 정규 출근시간보다 한 시간 빠른 8시에 저를 포함한 전직원이 출근해 사가(社歌)를 부르며 2km 아침 구보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분은 인쇄소 견학 소감을 듣고 서로의 의견을 한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진행으로 현재 사원들의 융화라는 기존 목적달성은 물론 현재 전 임직원의 사기가 충천해 있습니다”라며 공사진행상황과 맞물려 사원들이 스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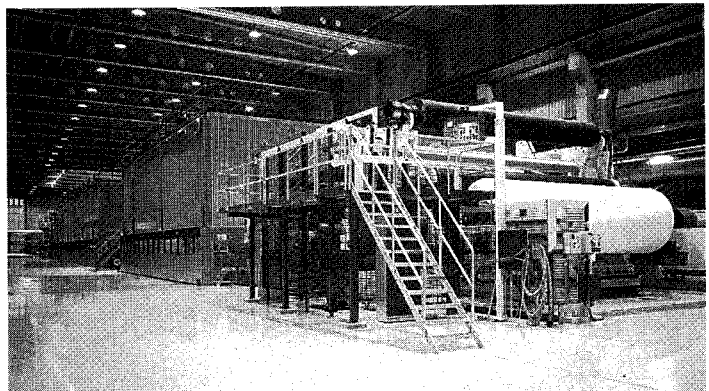
로 만들어 내고 있는 신탄진 공장의 완성도를 피력했다.

공장을 둘러보면서 신호제지(주) 관계자들이 설명하는 설비의 현대화와 대형화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특히 대형화에 의해 공정이 완벽해지면서 신탄진 공장에

서 생산될 양질의 제품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 또 현대화된 시설 중 특이한 시설은 바로 커다란 투명벽으로 둘러진 공간이었다. 이는 바로 컴퓨터조정시설인데 신탄진 공장의 현대화에 따른 당연한 부대시설일 것이다.

이중 SYM-SIZER라는 기계는 잉크의 번짐을 방지하고 컬러와 광택을 보강해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양질의 제지생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여기에 덧붙여 SOFT CALENDER는 프레스와 열의 합작으로 광택을 내주어 신호제지(주)만의 제지 생산기술을 주도한다.

이처럼 현대화된 신탄진 공장에서는 아트지



▲제지생산의 마무리 단계인 제1호기의 최종 공정

와 준아트지, 백상지 등이 생산될 예정인데 총 무부의 조정진 차장은 “저희 신탄진 공장에서 생산될 제품의 특성은 5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강도 및 백색도가 우수하다는 것이고, 둘째는 평활성과 광택이 우수하다는 것, 세째는 두께가 양호하고 네번째 특징은 인쇄적성이 우수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신탄진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가장 큰 특성은 SYM-SIZER에서 PIGMENT COATING을 하고, CALENDER 처리를 하므로 현재 타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DOUBLE COATING지보다 우수한 물성을 가진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라며 시설 현대화의 투자에 대한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또한 신탄진 공장이 본격 가동될 경우 내수시장 마켓쉐어가 5%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동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원을 보강하려면 약 500여명의 직원이 필요하지만 자동화된 시설로 350여명의 인원만이 필요한데 이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안정적인 투자라 할 수 있겠다.

현재 건설중인 신탄진 공장 이외에 오산 제1공장은 월 1만톤의 백상지와 아트지를 생산하

며 월 600여톤의 특수지를 생산하는 상주 제2공장은 현재 평택의 일성제지 공장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21세기 국내 최고 제지사 성장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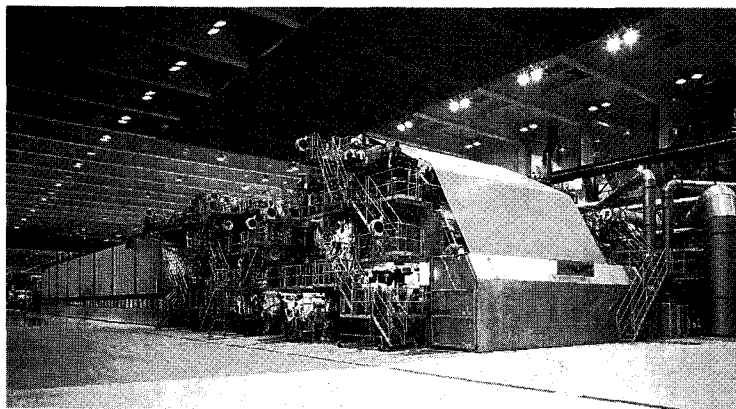
97년이라는 현 시점에서 21세기를 준비하고 있는 신호제지(주)의 분주한 움직임은 신탄진 공장건설 현장은 물론 서울 본사에서도 여념없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논현동에 위치한 본사를 9월말 쯤에 양재동으로 이전해 부서재편 및 업무 분위기를 일신할 예정으로 있다.

한창 마무리작업에 여념이 없는 신탄진 공장을 둘러보면서도 사원들간의 화합과 끈끈한 우정을 느낄 수 있었는데 인포멀 그룹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어느새 신호제지(주)의 사품으로 자리잡은 자연스럽고 밝은 사내 분위기 때문일 것이다.

꽤나 먼 길이였지만 오가는 길이 전혀 길게 느껴지지 않았고 신탄진에 도착해서도 밝은 모습으로 기사를 대하는 신호제지(주) 사원들의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설비와 인력에 대한 투자, 그리고 스스로 직장 분위기를 일신해 가기 위한 전 임직원의 노력이 모여 국내 최고의 제지사로 우뚝 선 신호제지(주)의 미래를 신탄진 공장 건설현장 사원들의 구슬땀 맺힌 밝은 얼굴과 활기넘치는 그들의 어깨에 비추어 바라볼 수 있었다. □

윤지은 기자



▲ VALMET사의 설비로 현대화·대형화된 신탄진 공장 내부